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1. Vol. 13. No. 2. pp. 187-205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유 성 경　　이 소 래†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수준에 따라 비행관련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비행화 수준은 비행무경험학생, 비행경험학생, 소년원청소년, 소년교도소청소년의 네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는 개인차원, 가정차원, 학교차원, 지역사회차원에 따라 분류되었다. 연구는 중·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 학생(2,469명)과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비행청소년(1,89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비행행동과 위험요소, 보호요소는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질문지에 의해 측정되었다. 연구결과 비행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대부분의 위험요소에서 의의있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보호요소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비행경험학생집단의 경우 우울 및 불안 수준,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에서 공식적 비행청소년집단보다 높은 위험수준을 보였으며, 긍정적 정체감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연구의 의의와 한계, 청소년비행연구 및 상담실제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리질리언스, 비행, 위험요소, 보호요소, 청소년

† 교신저자 : 이 소 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9-50
FAX: 02-702-0374 / E-mail: sorae@mm.ewha.ac.kr

청소년 비행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의 효과성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청소년비행이 강력범죄화, 저연령화 되고, 재범율이 높아지는데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문화관광부, 1999; Bilchik, 1999) 청소년 비행 문제에 대해 이렇듯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변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으며(Loeber & Farrington, 1998), 문제행동들 서로간에 상관이 높고(Thornberry, 1994), 대부분의 경우에 비행의 경력이 매우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Achenbach, 1974; Zigler, Taussing, & Black, 1992) 문제행동이 가시화 된 시점에서는 문제행동을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청소년비행을 변화가 어려운 문제로 보는 입장의 공통점은 청소년비행을 주로 위험요소(risk fractors)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위험요소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평균적인 다른 사람에 비해 발달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높아지도록 하는 특성 및 변인"(Polland, Hawkins, & Arthur, 1999에서 재인용)으로 정의된다.

청소년비행의 원인 및 관련된 변인을 위험요소의 관점에서 분석하게 될 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청소년의 비행을 촉발하게 하는 환경적 위험요소가 청소년 개개인에게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동일한 위험요소에 대해서 청소년 개인이 지니고 있는 보호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청소년 개인이 위험요소를 지각하고, 해석하고, 이에 대해 반응하는 양태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Guerra, 1999). 어떤 청소년의 경우, 다중의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Rutter, 1995).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개념이 보호요소이다. 즉, 보호요소란, "위험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Garmez, 1985)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보호요소는 위험요소의 부정적인 영향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작용을 함으로써 위험요소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며(additive model, Garmez, 1985; Werner, 1994), 보호요소를 통해 청소년 개인이 적응유연(resilient)해 짐으로써 위험요소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해감으로써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줄여갈 수도 있다(interactive model, Kirby & Fraser, 1997; Rutter, 1990). 위험요소에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적응유연한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연구하여 보호요소의 종류를 밝혀낸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호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밝혀졌다. 첫째는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지능이 높고, 긍정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적응유연한 기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이며, 둘째 친화력 있는 인간관계(bonding relationship)로서 가족, 친구, 사회기관 등의 누구와도 따뜻하고 정서적이며 신뢰로운 관계를 진정으로 맺는 경우이며, 셋째 행동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Pollard, Hawkins, & Arthur, 1999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청소년비행과 비행관련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어떻게 하면 보다 심층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또한 효과적인 청소년비행상담 전략 구상에 필요한 기초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행과 관련된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어떠한 기준으로 분석해야 하는가?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행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어떠한

위험요소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어떠한 보호요소가 결핍되어 있는지를 변별적으로 밝혀 내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비행 수준에 따라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차별적으로 밝혀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의 비행청소년 특성과 관련된 몇몇 연구들(Guerra, 1999; Laub & Lauritsen, 1993)에 의하면 비행청소년은 비행수준에 따라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폭력적인 비행을 저지르는 비행청소년은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입 전략이 필요함이 누차 지적되어 오고 있다(Howell, 1998).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청소년비행에 대해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청소년 비행수준과 비행 관련 변인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비행수준은 크게 일반학생집단과 공식적비행청소년집단으로 나누고, 일반학생집단은 다시 비행무경험집단과 비행유경험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공식적비행청소년집단은 소년원청소년집단과 소년교도소청소년집단으로 나누었다. 비행수준에 따라 네 개로 나누어진 집단이 비행관련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중 · 고교(인문계, 실업계)에 재학중인 일반청소년들과 전국의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수감중인 공식적 비행청소년들을 선정하여 비행수준을 나누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일반청소년의 표집은 서울지역, 대도시 2지역, 중 · 소도시 4지역, 읍 · 면 · 동 4지역에서 각각 중학교 4개교와 인문계고등학교 4개교, 실업계고등학교 4개교, 총 48개교를 선정하였으며, 설문대상자의 성별과 학년을 고려하여 각 학교 당 약 50에서 60명씩 2,640명을 표집하였다. 비행청소년집단의 경우는 전국 11개 소년원과 2개 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소년 중 만 13세에서 20세의 남 · 녀 청소년들로 글자해독이 가능한 약 2,100명의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으로 일반청소년들은 유층집락무선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었다. 학교선정을 위해 전국을 서울, 대도시, 중 · 소도시, 읍 · 면 · 동 단위로 층화하고 위치, 지역크기,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대도시 2지역(대구, 부산), 중 · 소도시 4지역(충주, 강릉, 목포, 평택), 읍 · 면 · 동 4지역(통영, 진안, 논산, 봉화)을 선정하였다. 서울지역에서는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별로 각 4개교, 대도시지역은 각 2개교, 중 · 소도시 및 읍 · 면 · 동 지역에서는 각 1개교씩을 선정하여 학교의 비율을 고르게 하였다. 학교 선정은 교육부(1999)에 지역별로 수록된 학교 가운데 무작위로 이루어졌다. 선정된 학교에 전화를 통하여 교감선생님에게 협조를 구하고, 연구의 목적과 설문실시 방법을 구두와 문서로 설명한 후, 협조에 응한 경우에 학교의 진로상담교사 혹은 상담교사와 실무접촉을 갖게 되었다. 설문지는 우편을 통하여 각 학교별로 배부, 수거하였다. 설문실시는 HR시간이나 수업시간을 통해 담당교사가 실시하였으

〈표 1〉 조사대상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구 분		중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소년원 청소년	소년교도소 청소년집단	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자	431(51.2)	527(63.2)	350(44.4)	994(91.0)	785(97.9)	3087(70.8)
	여자	410(48.8)	307(36.8)	438(55.5)	89(8.2)	3(0.4)	1247(28.6)
	무응답			1(0.1)	9(0.8)	9(0.8)	24(0.6)
	전체	841(100.0)	834(100.0)	789(100.0)	1092(100.0)	802(100.0)	4358(100.0)
거주지역	서울	187(22.2)	155(18.5)	174(22.1)	전국 11개 소년원 1092명	김천소년교도소 390(48.63) 천안소년교도소 412(51.37)	
	대도시	248(29.5)	221(26.4)	200(25.4)			
	중소도시	216(25.5)	223(26.7)	168(21.2)			
	면리단위	192(22.7)	238(28.5)	247(31.3)			
	전체	838(100.0)	837(100.0)	789(100.0)	1092(100.0)	802(100.0)	4358(100.0)
부의교육수준	무학	17(2.1)	13(1.5)	49(6.5)	102(9.3)	85(10.6)	266(6.3)
	초등학교 졸업	81(10.3)	80(9.8)	149(19.8)	231(21.1)	196(24.4)	737(17.3)
	중학교 졸업	104(13.3)	105(12.8)	158(21.0)	225(20.6)	170(21.2)	762(17.9)
	고등학교 졸업	342(43.5)	342(41.8)	341(45.3)	368(33.7)	233(29.0)	1626(38.3)
	대학교졸업이상	232(29.5)	278(28.5)	54(8.0)	41(3.8)	47(5.9)	652(15.4)
	모른다	7(0.9)		2(0.3)	109(10.0)	62(7.7)	180(4.2)
	무응답	2(0.3)			16(1.5)	9(1.1)	27(0.6)
	전체	785(100.0)	818(100.0)	753(100.0)	1092(100.0)	802(100.0)	4250(100.0)
모의교육수준	무학	25(3.2)	19(2.1)	46(6.2)	72(6.6)	89(11.1)	249(5.9)
	초등학교 졸업	78(10.1)	108(13.3)	172(23.0)	192(17.6)	171(21.3)	721(17.0)
	중학교 졸업	158(20.4)	152(18.6)	206(27.5)	230(21.0)	173(21.6)	919(21.7)
	고등학교 졸업	376(48.4)	417(51.1)	301(40.2)	333(30.5)	230(28.6)	1657(39.1)
	대학교졸업이상	129(16.6)	121(14.8)	21(2.8)	40(3.6)	46(5.7)	357(8.4)
	모른다	8(1.0)		3(0.4)	198(18.7)	87(10.8)	296(7.0)
	무응답	2(0.0)			27(2.5)	6(0.7)	35(0.8)
	전체	776(100.0)	815(100.0)	749(100.0)	1092(100.0)	802(100.0)	4234(100.0)
가정의경제상황	매우 어렵다	13(1.6)	14(1.7)	34(4.3)	69(6.3)	56(7.0)	186(4.3)
	어렵다	109(13.1)	135(16.2)	249(31.8)	285(26.1)	198(24.7)	976(22.5)
	보통이다	600(71.9)	586(70.3)	460(58.7)	642(58.8)	457(57.0)	2745(63.2)
	풍족하다	100(12.0)	90(10.8)	36(4.6)	73(20.4)	59(7.4)	358(8.2)
	매우 풍족하다	10(1.2)	8(1.0)	5(0.6)	14(1.3)	27(3.4)	64(1.5)
	무응답	2(0.2)			9(0.8)	5(0.6)	16(0.4)
	전체	834(100.0)	833(100.0)	784(100.0)	1092(100.0)	802(100.0)	4345(100.0)
거주지형태	자가	539(66.3)	597(73.3)	476(61.8)	411(37.6)	360(44.9)	2383(55.5)
	전세	182(22.4)	150(18.4)	198(25.7)	377(34.5)	240(29.9)	1147(26.7)
	월세	49(6.0)	24(2.9)	67(8.7)	199(18.2)	110(13.7)	449(10.5)
	영구임대아파트	40(4.9)	44(5.4)	29(3.8)	88(8.1)	75(9.4)	276(6.4)
	무응답	3(0.4)			17(1.6)	17(2.1)	37(0.9)
	전체	813(100.0)	815(100.0)	770(100.0)	1092(100.0)	802(100.0)	4292(100.0)

며 소요시간은 평균 30분에서 4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법무부의 보호국과 교정국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11개 소년원과 2개 소년교도소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연구의 목적과 표집 및 설문실시 방법을 구두와 문서로 설명한 후,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내에서 설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설문지는 비행행동과 관련된 매우 사적인 정보를 조사하는 내용이므로 설문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응답자들의 신뢰로운 반응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설문에서는 각 설문지 작성을 마친 후 응답자들이 스티커로 본인의 설문지를 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청소년의 경우 총 2,64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2,493부를 회수하여 94.4%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서는 총 2,469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재소청소년의 경우는 총 2,100부를 발송하여 2,029부를 회수하여 96.6%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894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2,469명의 학교재학청소년들과 1,894명의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 수감 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의 비행행동과 이와 관련된 위험요소, 보호요소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비행수준 및 유형, 비행과 관련된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측정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연구도구의 제작은 국내 · 외 청소년비행 및 비행관련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에 관한 문헌을 토대로 예비변인 목록을 작성하고, 청소년비행상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을 거쳐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예비문항에 대하 본 연구대상자들 가운데 가장 연소 연령대인 중1 학생 10명과 focused group discussion을 거쳐 문항내용을 수정, 보완, 첨삭하는 과정을 거친 후 중, 고교생 235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문항간 내적 합치도가 .60이 넘는 문항만을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 비행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비교적 상습적, 중증인 비행으로 분류되는 폭력, 성비행, 약물남용을 일차적으로 선정하였고, 이차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화 과정에서 공통적인 과정으로 나타나는 학교중도탈락과 가출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청소년비행의 5가지 유형(폭력, 약물남용, 성비행, 학교중도탈락, 가출)을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비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측정

〈표 2〉 비행행동의 측정 내용

비행행동	약물관련비행	학교중도탈락	성관련비행	가출	폭력관련비행
하위유형	· 술 · 담배 · 본드,니스, 가스 등의 약물	· 학교중도탈락	· 성관계 · 강제적 성관계 (성폭력, 강간 등) · 임신	· 가출	· 기물 파괴 행위 · 패싸움 · 흉기를 사용한 폭력 · 협박을 통한 갈취

〈표 3〉 위험요소의 측정 내용 및 신뢰도(Cronbach's α)

구 성 내 용	문항수	신뢰도
개인적 위험요소	19	.83
공격성	5	.81
우울 및 불안	7	.82
반사회적 인지 경향	5	.77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2	.71
또래 관련 위험요소	6	.86
가족 관련 위험요소	21	.88
학대적 양육태도	5	.71
비일관적인 양육태도	3	.70
가정불화	3	.62
가족관계의 문제	7	.85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	3	.71
지역사회관련 위험 요소	5	.79
학교관련 위험 요소	6	.71
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	4	.71
학교성적	1	
학교전학	1	
전체	57	.91

〈표 4〉 보호요소의 측정 내용 및 신뢰도(Cronbach's α)

구 성 내 용	문항수	신뢰도
개인적 보호요소	18	.67
긍정적 가치관	8	.65
긍정적 자기 정체감	2	.67
사회적 유능감	8	.65
가족관련 보호요소	9	.82
부모의 정서적지지	5	.70
부모의 자녀학습에의 관여	4	.75
지역사회관련 보호 요소	3	.72
학교관련 보호 요소	6	.63
학습에의 긍정적 가치와 책임감	3	.42
학교에서의 지지	3	.65
전체	36	.80

한 구체적인 비행행동의 종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 비행관련 위험요소들은 국·내외에서 연구되어진 방대한 자료들 가운데 종단적 연구 및 메타 분석연구를 통해 비행행동에 대해 예언력이 높은 변인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위험요소의 측정내용 및 신뢰도에 관한 정보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청소년 비행관련 보호요소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존 연구물들이 매우 부족하고, 밝혀진 보호요소들도 그다지 분명한 개념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보호요소의 개념을 발달적 강점(developmental assets)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미국 청소년들의 실태를 대규모로 조사(Profiles of Student Life)하고 있는 Searach Institute (1998)의 설문지에서 보호요소 관련 항목을 발췌하여 사용하고 이들 가운데 문화적인 타당도가 떨어지는 문항들은 최종 문항 선정과정에서 제외되어 총 39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보호요소의 측정 내용 및 신뢰도에 관한 정보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문항에 대한 측정 방식은 각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들에 대해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각 하위점수별 총합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각 문항의 점수를 역환산시켜 총점을 산출하였다. 환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많은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청소년비행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론상으로는 비행의 수준을 구분하는 것

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행행동에 포함되는 문제행동의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문제 행동이라고 해도 비행성의 수준을 나누는 기준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비행성 수준 평가는 실제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비행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먼저, 학교에 소속된 학생집단과 공식적인 교정기관인 소년원, 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식적 비행청소년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학생집단은 다시 비행행동 경험의 유무에 따라 비행경험학생집단과 비행무경험학생집단으로 나누었다. 비행경험의 유무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조사하였던 12가지 비행행동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한번이상 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비행경험학생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행수준별로 네 집단(비행무경험학생집단, 비행경험학생집단, 소년원청소년, 소년교도소청소년) 간에 나타나는 개인적 차원, 가족관련, 학교관련, 지역사회관련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별 집단비교를 위한 사후검사로는 Scheffe의 사용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1. 비행수준에 따른 집단별 위험요소의 차이

1) 개인적 위험요소의 차이

비행무경험학생, 비행경험학생, 소년원청소년, 소년교도소청소년 집단의 개인적 위험요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격성, 우울 및 불안, 반사회적 인지경향, 문제행동의 조기시작에 대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6 참조). 그 결과 네 집단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 11072)=149.590$), $p<.001$), 단일변량분석결과 개별변인 모두에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인적 위험요소 가운데 공격성의 차원에서 비행경무험학생집단을 제외한 세 집단이 같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울 및 불안 차원에서는 비행경험학생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의미있게 높은 위험을 보여 주고 있으며, 반사회적 인지경향에서는 소년교도소청소년집단이 의의있게 가장 높은 반사회적 인지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소년원청소년과 비행경험학생집

〈표 5〉 비행수준에 따른 개인적 위험요소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비행무경험학생 (N=723)	비행경험학생 (N=1578)	소년원청소년 (N=1091)	소년교도소 (N=800)
	M(SD)	M(SD)	M(SD)	M(SD)
공격성	2.67(.74)	3.03(.71)	3.08(.85)	3.10(.86)
우울 및 불안	2.28(.70)	2.85(.75)	2.36(.64)	2.31(.67)
반사회적인지경향	2.31(.69)	2.85(.75)	2.79(.76)	2.93(.80)
문제행동의 시작	1.80(.76)	3.19(1.00)	3.23(.99)	3.19(1.00)

〈표 6〉 비행수준에 따른 개인적 위험요소들에 대한 다변량분석

	Wilks' Lambda	SS	df	MS	F	사후검증(주)
공격성	.672	92.98	3	30.95	47.14*	4>3,2,1
우울 및 불안		42.07	3	14.02	30.11*	2>4,3>1
반사회적 인지 경향		184.08	3	61.36	108.38*	4,2>3>1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1367.70	3	455.90	516.60*	3,4>2>1

* p<.001,
(주) 1: 비행무경험학생, 2: 비행경험학생, 3:소년원청소년, 4:소년교도소청소년

단은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조기시작의 경우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청소년들이 학생 집단 보다 의미있게 일찍 문제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또래관련 위험요소의 차이

비행무경험학생, 비행경험학생, 소년원청소년, 소년교도소청소년 집단간의 또래관련 위험요소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비행무경험학생, 비행경험학생, 소년원청소년, 소년교도소청소년 집단간의 또래관련 위험요소 점수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또래관련위험요소는 네 집단 각각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소년교도소청소년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또래관련 위험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표 7〉 비행수준에 따른 또래관련 위험요소의 평균 및 표준편차

	M (SD)
비행무경험 학생(N=775)	1.10 (.19)
비행경험 학생(N=1674)	1.38 (.46)
소년원청소년(N=1089)	2.13 (.69)
소년교도소청소년(N=801)	2.29 (.77)

3) 가족관련 위험요소의 차이

비행무경험학생, 비행경험학생, 소년원청소년,

〈표 8〉 비행수준에 따른 또래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변량분석

	SS	df	MS	F	사후검증(주)
집단간변이성	936.237	3	312.08	987.241*	4>3>2>1
집단내변이성	1370.346	4335	.32		
전체 변이성	2306.583	4338			

* p<.001
(주) 1: 비행무경험학생, 2: 비행경험학생, 3:소년원청소년, 4:소년교도소청소년

〈표 9〉 비행수준에 따른 가족관련 위험요소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비행무경험학생 (N=747)	비행경험학생 (N=1621)	소년원청소년 (N=1092)	소년교도소 (N=801)
	M(SD)	M(SD)	M(SD)	M(SD)
학대적양육	1.94(.61)	2.12(.67)	2.16(.74)	2.21(.78)
비일관성	2.34(.84)	2.71(.84)	2.36(.82)	2.45(.88)
가정불화	1.94(.76)	2.22(.82)	2.25(.86)	2.38(.87)
가족관계문제	2.14(.72)	2.51(.79)	2.58(.80)	2.65(.81)
문제허용	1.55(.62)	1.97(.72)	2.54(.82)	2.67(.78)

소년교도청소년 집단의 가족관련 위험요소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대적 양육태도, 비일관적 양육태도, 가정불화, 가족관계의 문제,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에 대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10 참조). 그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주효과가($F(3, 11743)=105.949$, $p<.001$)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변량분석 결과 학대적 양육태도, 비일관적 양육태도, 가정불화, 가족관계문제,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에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대적 양육태도에 있어서 비행무경험학생집단이 학대적 양육을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그 외의 나머지 세 집단은 모두 같은 수준에서 학대적 양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양육태도의 비일관성에 있어서는 비행경험학생집단이 부모들의 양육이 가장 비일관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정불화의 경우, 소년교도소청소년이 가장 가정불화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소년원청소년과 비행경험학생집단이 같은 수준의 가정불화를 보고하고 있다. 가족관계문제는 소년교도소, 소년원청소년 들이 같은 수준의 문제를 보고하고 있었다.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에 있어서는 소년교도소청소년이 가장 높고, 소년원, 비행경험학

〈표 10〉 비행수준에 따른 가족관련 위험요소들에 대한 다변량분석

변인	Wilks' Lambda	SS	df	MS	F	사후검증㈜
학대적 양육태도	.704	31.81	3	10.60	21.53*	4,3,2>1
비일관적 양육태도		110.93	3	36.98	51.83*	2>4,3,1
가정불화		78.95	3	26.32	38.36*	4>3,2>1
가족관계문제		118.98	3	39.66	64.24*	4,3>2>1
문제허용		700.68	3	233.56	419.91*	4>3>2>1

* $p<.001$

㈜ 1: 비행무경험학생, 2: 비행경험학생, 3:소년원청소년, 4:소년교도소청소년

생, 비행무경험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4) 학교 관련 위험요소의 차이

비행무경험학생, 비행경험학생, 소년원청소년, 소년교도청소년 집단의 학교관련 위험요소에 있어서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부정적태도, 학교성적, 전학횟수에 대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1, 12 참조). 그 결과 주효과가 $F(3, 10409)=104.49$,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변량분석 결과 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교성적, 학교전학횟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육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학생집단이 소년교도소, 소년원청소년들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교성적의 경우, 비행무경험학생집단이 가장 위험점수가 낮은 반면 나머지 세 집단은 비슷한 수준에서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학횟수의 경우, 소년교도소, 소년원청소년집단이 학생집단에 비해 의의 있게 전학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지역사회 관련 위험요소의 차이

비행무경험학생, 비행경험학생, 소년원청소년, 소년교도소청소년 집단의 지역사회관련 위험요소에 있어서 네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네 집단간에 지역사회관련 위험요소 점수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역사회관련 위험요소는 네 집단 각각 통계적으로 의의 있

〈표 11〉 비행수준에 따른 학교관련 위험요소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비행무경험학생 (N=745)	비행경험학생 (N=1644)	소년원청소년 (N=1092)	소년교도소 (N=802)
	M(SD)	M(SD)	M(SD)	M(SD)
교육에 대한부정적태도	2.54(.82)	3.15(.83)	3.24(.72)	3.32(.71)
학교성적	3.19(1.46)	3.80(1.40)	4.71(1.44)	4.21(1.56)
전학횟수	2.01(1.41)	2.15(1.53)	2.38(1.64)	2.44(1.75)

〈표 12〉 비행수준에 따른 학교관련 위험요소들에 대한 다변량분석

	Wilks' Lambda	SS	df	MS	F	사후검증(주)
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		295.95	3	98.65	161.65*	4,3>2,1
학교성적	.810	1126.82	3	375.61	177.69*	3>4>2>1
학교전학횟수		105.84	3	35.28	14.11*	4>3>2>1

* $p<.001$

(주) 1: 비행무경험학생, 2: 비행경험학생, 3:소년원청소년, 4:소년교도소청소년

〈표 13〉 비행수준에 따른 지역사회 관련 위험요소의 평균 및 표준편차

	M(SD)
비행무경험학생(N=749)	2.12(.67)
비행경험학생(N=1610)	2.35(.71)
소년원청소년(N=1092)	2.49(.87)
소년교도소청소년(N=802)	2.64(.93)

는 차이를 보였으며 소년교도소청소년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지역사회관련 위험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비행수준에 따른 집단별 보호요소의 차이

1) 개인적 보호요소의 차이

비행수준에 따라 개인차원의 보호요소에 있

〈표 14〉 비행수준에 따른 지역사회 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변량분석

	SS	df	MS	F	사후검증(주)
집단간변이성	121.73	3	40.58		
집단내변이성	2659.87	4249	.63	64.82*	4>3>2>1
전체 변이성	2781.60	4252			

* $p<.001$

(주) 1: 비행무경험학생, 2: 비행경험학생, 3:소년원청소년, 4:소년교도소청소년

〈표 15〉 비행수준에 따른 개인적 보호요소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비행무경험학생 (N=720)	비행경험학생 (N=1611)	소년원청소년 (N=1091)	소년교도소 (N=802)
	M(SD)	M(SD)	M(SD)	M(SD)
긍정적가치관	3.98(.49)	3.66(.48)	3.42(.48)	3.42(.49)
긍정적정체감	3.01(1.04)	2.81(1.00)	2.92(.94)	3.13(.97)
사회적유능감	3.37(.49)	3.30(.48)	3.24(.52)	3.32(.55)

〈표 16〉 비행수준에 따른 개인적 보호요소들에 대한 다변량분석

	Wilks' Lambda	SS	df	MS	F	사후검증(주)
긍정적가치관		172.58	3	57.53	245.73*	1>2>3,4
긍정적정체감	.833	60.94	3	20.31	20.77*	4,1>3>2
사회적유능감		8.32	3	2.77	10.76*	1>4,2>3

* $p<.001$

(주) 1: 비행무경험학생, 2: 비행경험학생, 3:소년원청소년, 4:소년교도소청소년

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행무경험학생, 비행경험학생, 소년원청소년, 소년교도청소년 집단 간에 긍정적 가치관, 긍정적 정체감,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5, 16 참조). 그 결과 주효과가 $F(3, 10265)=89.09$,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각 변인에 대한 단일변량 분석 결과 모든 개별변인에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긍정적 가치관에 있어서 학생집단과 공식적 비행청소년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소년원청소년과 소년교도소청소년들 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생집단의 경우 비행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비행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 가치관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긍정적 정체감 변인에 있어서는 소년교도소청소년집단이 다른 세 집단과 의미있는 차이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비행경험학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낮은 긍정적인 정체감점수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유능감 차원에서는 소년원청소년과 비행경험학생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2) 가족관련 보호요소의 차이

비행무경험학생, 비행경험학생, 소년원청소년, 소년교도청소년 집단 간에 가족관련 보호요소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지지, 부모학습관여에 대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7, 18 참조). 그 결과 주효과가 $F(6, 8624)=43.43$,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단일변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와 부모학습관여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지지, 부모의 학습관여 측면 모두에서 비행무경험학생집단, 비행경험학생집단이 공식적 비행청소년들보다

〈표 17〉 비행수준에 따른 가족관련 보호요소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비행무경험학생 (N=761)	비행경험학생 (N=1611)	소년원청소년 (N=1092)	소년교도소 (N=802)
	M(SD)	M(SD)	M(SD)	M(SD)
부모의지지	3.71(.73)	3.38(.78)	3.27(.61)	3.25(.61)
부모학습관여	3.56(.78)	3.21(.79)	3.01(.84)	3.00(.77)

〈표 18〉 비행수준에 따른 가족관련 보호요소들에 대한 다변량분석

	Wilks' Lambda	SS	df	MS	F	사후검증(주)
부모의 지지	.934	108.08	3	36.03	73.02*	1>2>3,4
부모학습관여		167.75	3	55.92	87.98*	1>2>3,4

* $p<.001$

(주) 1: 비행무경험학생, 2: 비행경험학생, 3:소년원청소년, 4:소년교도소청소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생집단의 경우 비행무경험집단이 비행경험집단에 비해 부모의 지지와 학습관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 관련 보호요소의 차이

비행무경험학생, 비행경험학생, 소년원청소년, 소년교도청소년 집단간의 학교관련 보호요소에 있어서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에의 긍정적 가치와 책임감, 학교에서의 지지에 대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9, 20 참조). 그 결과 주효과가 $F(6, 8660)=133.03$, $p<.001$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변량분석 결과 학습에의 긍정적 가치와 책임감, 학교에서의 지지 변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p<.001$). 학습에의 긍정적 가치와 책임감에서는 학생집단과 공식적 비행청소년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 학생집단 일수록 학습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에서의 정서적 지지차원에서는 학생집단에 비해 공식적 비행청소년집단이 보다 의미 있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19〉 비행수준에 따른 학교관련 보호요소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비행무경험학생 (N=768)	비행경험학생 (N=1672)	소년원청소년 (N=1092)	소년교도소 (N=802)
	M(SD)	M(SD)	M(SD)	M(SD)
학습책임감	3.56(.64)	3.27(.65)	2.93(.63)	3.01(.69)
학교지지	3.02(.63)	2.97(.64)	3.17(.79)	3.17(.74)

〈표 20〉 비행수준에 따른 학교관련 보호요소들에 대한 다변량분석

	Wilks' Lambda	SS	df	MS	F	사후검증㈜
학습책임감	.838	208.95	3	69.94	164.37*	1>2>3,4
학교지지		35.95	3	11.98	24.61*	4,3>1,2

* $p<.001$

㈜ 1: 비행무경험학생, 2: 비행경험학생, 3:소년원청소년, 4:소년교도소청소년

〈표 21〉 비행수준에 따른 지역사회관련 보호요소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M(SD)
비행무경험학생(N=753)	3.12(.67)
비행경험 학생(N=1616)	3.05(.73)
소년원청소년(N=1092)	2.90(.97)
소년교도소청소년(N=801)	2.97(1.00)

4) 지역사회 관련 보호요소의 차이

비행무경험학생, 비행경험학생, 소년원청소년, 소년교도소청소년 집단 간에 지역사회관련 보호요소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네 집단간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22 참조). 지

〈표 22〉 비행수준에 따른 지역사회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변량분석

	SS	df	MS	F	사후검증(주)
집단간변이성	25.27	3	8.42	11.86*	1,2>3,4
집단내변이성	3023.58	4258	.71		
전체 변이성	3048.85	4261			

* $p<.001$

(주) 1: 비행무경험학생, 2: 비행경험학생, 3:소년원청소년, 4:소년교도소청소년

역사회관련 보호요소에 있어서 학생집단이 공식적 비행청소년집단에 비해 의미있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비행무경험집단이 비행경험학생집단에 비해 더 높은 지역사회 보호요소 점수를 나타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비행수준에 따라 비행무경험학생, 비행경험학생, 소년원청소년, 소년교도소청소년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 집단 간에 비행관련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위험요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요소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무경험학생집단은 모든 위험요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결과로는 비행경험학생집단의 경우 위험요소 가운데 개인차원에서 우울 및 불안, 반사회적 인지경향성, 그리고 가족관련 위험요소 중 비일관적 양육태도 등이 소년원청소년집단이나 소년원청소년집단보다 높은 위험 점수를 보여주어 이들 집단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보호요소와 관련된 분석결과 대체로 모든 보호요소에서 비행무경험학생집단이 높은 보호요소 점수를 보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공식적 비행청소년집단이 긍정적인 자아감과 학교에서 정서적인 지지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비행청소년들이 반사회적 또래들과의 연대가 강하고 이들을 통해 심리적인 지원을 받고, 자아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받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요소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주목해야할 결과는 비행경험학생집단이 타 비행집단에 비해 긍정적 가치관, 학습에의 책임감, 부모의 지지와 학습관여, 지역사회의 보호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으나 긍정적 정체감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이들이 우울 및 불안의 개인적 위험요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던 것과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의미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구상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 수준의 대단위 표집에 기초하여 청소년비행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점, 청소년비행을 비행화 수준과 관련된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들간의 관계를 분석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전 연구에 비해 진일보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비행상담 개입전략을 구상하는데 의미있게 이용될 수 있는 실제적 자료로서 이론과 실

제를 연결시켜 준다는 점에서 비행상담 실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한계와 본 연구가 독특하게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첫째, 모든 청소년비행연구가 그러하듯이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기 보고식 자료에만 의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비행연구의 경우 이러한 자기보고의 자료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무응답율을 살펴보면, 학생집단에 비해 공식적 비행집단의 무응답율이 훨씬 높은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비행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데 있어서 방어적이며, 그만큼 자기보고 자료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한계는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설문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기존 청소년 관련 문헌들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항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과정을 모두 거치기는 하였으나 비행과 관련된 변인들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여 이를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작업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연구도구는 계속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 보다 청소년 비행 및 관련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로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 및 상담실제에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비행상담 개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를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 및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비행청소년들과 일반 청소년들을 뚜렷이 구분해 주는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들이 밝혀졌다. 이들 결과들을 비행상담 실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밝혀진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 평가결과에 따라 개입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지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집단으로 나타난 집단은 학교내의 비행집단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학생이라는 적법한 지위를 가지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감 수준이 가장 낮으며, 가정적으로 부모의 양육이 비일관된 것으로 지각하고 있어 어떠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이러한 위험요소들이 자극되고 이들이 지니고 있는 보호요소가 흔들리게 되면 이들이 공식적 비행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비행상담에서 중요한 예방단계는 아마도 이들 집단을 겨냥한 단계로 보아야할 것이다. 즉 아직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한 심각한 비행행동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고위험집단으로 이들이 반복되는 비행행동을 하지 않고, 탈비행화의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학교를 기지로 하는 상담개입 전략이 개발되는 것이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 중요한 개입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비행화의 수준에 따른 분석에 국한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 성 등의 다른 주요 변인들을 기준으로 비행행동, 관련된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의 자료가 확보되어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들을 포괄하며, 여자 비행청소년들을 보다 많이 표집할 수 있는 소년원, 소

년교도소 이외의 세팅을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자료들을 기초로 비행 및 위험, 보호요소들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드러내고, 비행화 과정적인 측면을 드러낼 수 있는 변인들간의 관계구조 및 경로분석 등의 보다 심화된 연구분석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문화관광부 (1999).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실.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성경 (1999). 청소년 탈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유성경 (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8. 한국교육학회.

Achenbach, T. M.(1974).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and delinquent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465-520.

Ageton, S. S(1983). *Sexual assault among adolescents*. Lexington: Lexington Books.

Arther, M. W., Hawkins, J. D., Catalano, F. R., Pollard, J. A., & Howze, T. H (1997). *Six State Consortium for Prevention Needs Assessments Studies Project;* Final report submitted to the kansas Department of Social and Rehabilitation Services, Alcohol and Drug Service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

Bensen, P. L. (1997). All kids are our kids : *What community must do raise caring and responsible children and adolescents*. San Francisco : Jossey-Bass.

Bilchik, S.(1999). OJJDP Research: *Making a difference for juveniles OJJDP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Coie, J. D., Watt, N. F., West, S. G., Hawkins, J D., Asanow, J R., Markman, H.J., Ramey, S. L. Shure, M. B., & Long, B. (1993). *The science of prevention : A conceptual framework and directions for a national research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48.* 1013～1022.

Corcoran, K., & Fischer, J. (1987).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New York: The Free Press.

Garme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 psychopathology*. New York : Pergamon.

Guerra, N. (1999).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Gaps in knowledge and research priorities. In R. Loeber & D. P. Farrington (Eds.), *Ser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 (pp. 389-443).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Hawkins, J. D., Arthur, M.W., & Catalano, R. F. (1995). Prevebtiong substance abuse. In M. Tonry & D.P Farrington (Eds.), *Building a safer society: Strategic approaches to crime prevention ; vol. 19.* crime and justice : A review of research (343～42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wkins, J. D., Herrenkohl, T., Farrington, D.P., Brewer, D., Catalano, R. F., & Harachi, T.W.(1999). A review of predictors of youth violence. In R. Loeber & D. P. Farrington

(Eds.), *Ser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 (pp.106-146).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Howell, J. C. (1998). *Guide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JJDP.

Kirby, L.D., & Fraser, M.W..(1997). Risk and regilience in childhood, In. M.W.Fraser (Ed.). *Risk and reg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10-33). Washington D.C. : NASW Press.

Laub, J.H. & lauritsen, J.L. (1993). Violent criminal behavior over the life course: A review of the longitudinal and comparative research. *Violence and Victims, 8,* 235-252.

Lipsey, M. W., & Derzon, J. H. (1999). Predictors of violent or serious delinquency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n Rr. Loeber & D. P. Farrington (Eds.), *Ser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 (pp.86-105).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Lober, R., & Le Blanc, M. (1990). Toward a developmental criminology. In M. Tonry & N. Morris (Eds.),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12. pp. 375-47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oeber, R. & Farrington, D., P (1998), *Serio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 Thousands Oaks: Sage Publications.

Loeber, R. (1990). Development and risk factors of juvenile antisocial behavior and deliquenc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1~41.

Logan C. H. & Gaes, G. G. (1993). Meta-analysis and the rehabilitation of punishment. *Justice Quarterly, 10,* 38-97.

Maguin, E., Hakins, J.D., Catalano, R. F., Hill, K.,Abbott, R.,& Herrenkohl, T(1995). Risk factors measured at tree ages for violence at age 17~18.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Boston.

Maguin, E., & loeber, R. (1996). Academic performance and delinquency. In M. Tonry (Ed), *Crime and justice : A review of research., 20,* 145~264. Chicago :University of Chcago Press.

Masten, A. S. (1999). Resilience comes of age reflections on the past and outlook for the next generation of research. In M. D. Glantz & J. L. Johnson. (1999). *Resilience and Development: Positive Life Adaptation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Newcomb, M.D. (1995). Indentifying high-risk Youth : Prevalence and patterns of adolescent drug abuse. In E. Rahdert, D.C. & I.Amsel (Eds.) *Adolescent drug abuse : Clinical assessment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pp. 7-38). Rockville: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Pollard, J., Catalano, R. F., Hawkins, J. D., & Arthur, M.(1997). *Development of a school-based survey measuring risk and protective of substance abuse in adolescent populations.* Manuscript under review.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W Kent & J. E Rolf(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3.*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49~74). Hanover: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Sameroff, A.J., & Fiese, B.M. (1990). Transactional regulation and early intervention. In S.J.

Meisels & J.P. Shonkoff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p, 119-149).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ornberry, T.P. (1994). Violent families and youth violence. *Fact Sheet #21.*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JJDP.

Yoshikawa, H. (1994). Prevention as cumulative protection: Effects of early support and education of chronic delinquency and its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15,* 28-54.

Werner, E. E. (1994). *Overcoming the odds.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5,* 131-136.

Williams, J. H. (1994). *Understanding substance use, delinquency involvement, and juvenile justice system involvement among Af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Zigler, E., Taussing, C., & Black, K.(1992).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a promising preventative for juvenile delinquency. *American Psychologist, 47,* 997-1006.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1. Vol. 13. No. 2. pp. 187-205

Risk and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Delinquency in Korean Youths

Sung-Kyung Yoo So-Rae Le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 risk factors and the protective factors as to the level of delinquency. Data were collected form 2,469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from 1,894 delinquent youths from correction schools and youth jails. According the experience of delinquent behaviors,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students with delinquent behaviors and students without delinquent behaviors.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were measured on the individual, family, school and community levels.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and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was reported, Results indicated, as expected, delinquent youths were shown to have more risk factors and less protective factors compared to non-delinquent youths. Students with delinquent behaviors were found to show the highest level of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e lowest level of positive self-identity. Also, they reported the highest level of inconsistency of the parenting styl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and counseling for delinquenct youths were suggested.

Key Words: : resilience, delinquency, risk factor, protective factor, youth